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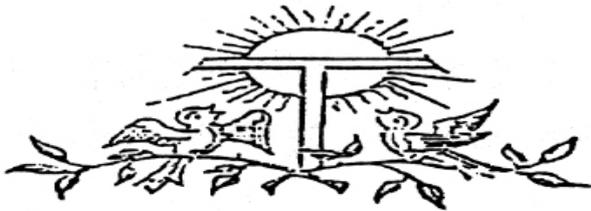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04호 2006년 4월 23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서는 되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 마르코 16. 6-6

오 주님, 우리 하느님,
 저희는 갖가지 모습으로
 온갖 일을 하면서 살지만
 서로에게 서로를 내놓아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서 교회의 부르심과 생활 안에서
 세라핌적 사부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청하오니 저희가 매일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면서 복음에서 생활로
 생활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회칙기도 중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주님, "당신은" 홀로 거룩하시며,
 "기적을 하시는"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세시고 위대한 분이시나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전능한 왕이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아버지시며 하늘과 땅의 왕이시나이다.
 당신은 삼위이시고 일체이시오며 신들의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선 자체이시며 모든 선이시며 지상
 선이시나이다.
 당신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오며 참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사랑이시으며 자비이시나이다.
 당신은 지혜이시으며 겸손이시나이다.
 당신은 인내이시으며 안식처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평화이시으며 기쁨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으며 즐거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흠족하게 하는 온갖 보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으며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피난처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보호자이시으며 아버지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이시으며 휴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으며 우리의 믿음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온전한 감미로움이시으며,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위대하시고 감탄하을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운 구세주이시여!

- 성 프란치스코

이 찬미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비스러운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해 주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이 노래를 통하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하느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노래는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을 때 혹은 그 후에 도달했던 신비로운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세상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세상에 '가져오려고' 하기 보다 이미 하느님께서 세상에 계심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세상'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파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였다. 프란치스코에게 세상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성 프란치스코의 세상을 보는 눈을 살펴보면 성인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늘 친밀하게 느낀 그는 피조물 안에 창조하신 분의 표가 새겨져 있으며 그래서 그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 불렀다. 피조물들은 그들을 창조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사물 안에서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느님을 보았다. 모든 사물이 그에게는 선이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성인은 외쳤다. 성 프란치스코가 보는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이다. 프란치스코에게 인간과 자연은 다 같은 피조물이며 동등한 관계로서 형제요 자매였다. 그에게 자연은 우리 삶의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요 동료이다.

일반적으로 세속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이 반교회적인 것으로 오직 인간만이 세상의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모든 사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재속성이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성화 성소로 불림 받은 인간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응답하는 특성을 지니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회와 문화와 과학의 발전 등을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1,31)라고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다. 성서는 ‘세상’에 대해 두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곳이다. “세상도 그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시오.”(1요한 2,15)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어 구원을 이루는 곳이다(교회 31).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였다.”(요한 3,16-17) 즉 죄로 물든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인 교회가 존재하듯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 하느님 나라로서의 세상이 존재한다.

.....

카이사르의 것과 하느님의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하지만 그것을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악에 감염되어 있는 세상의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속프란치스코가 되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다. 재속 프란치스코에게 세속은 더 이상 더럽고 경멸하거나 도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성화시켜야 할 삶의 자리”이다. 재속프란치스코로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요 프란치스코의 모범이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고 작아지고 내려갈 수 있는 삶의 터전에 살고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세상 가까이 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조금씩 복음화되면 그만큼 세상을 통해 프란치스코가 노래했던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생활하고,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재속프란치스코는 복음의 재속성을 널리 알리는 당사자들이며 표지이다.

-라 베르나에서 발췌

욕심이 가득해질 때

詩.용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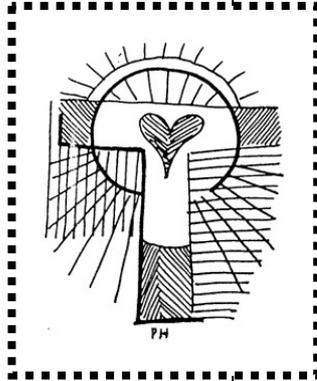
비워야 채워지는 것을 모르고
넘치는 욕심에 무작정 달려들고
가지면 가질수록
허망함만 가득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득 채우는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나누어야 부족함 없는 것을 모르고
넘치는 욕심에 기를 쓰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야 더 편한 것을
불편하게 포장하고
과장하며 위선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마음의 가난이
더 풍성한 것을
채우려는 욕심만 커져서
채울 수 없는 부족함으로 느끼지 말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욕심이 마음을 흔들어놓고
사랑을 변하게 만들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오니
욕심에서 벗어나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단 하루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만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등에 무덤을 지니고 다니는
홀꺾데기에 불과하다.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외할머니의 사랑이다. 외할머니는
며느리가, 그러니까 내게는 외숙모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코흘리개 손자 손녀를 네
명이나 손수 길러내신 분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사탕 한 알도 제대로 잡수지 않으셨다.
낮잠은 커녕 편안히 손을 놓고 앉아 쉬는 법이
없었으며, 몸져 눕지 않는 한 대낮에 자리에
누워 있는 일이란 없었다. 잠시도 손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못 배기셨으며,
손자들이 하는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돌보아
주셨을 뿐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으셨다.

우리들 사랑의 원형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랑은 그리 호들갑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희생을 수반한다.

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랑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거미 중에는 자기의 몸을 온통
자식에게 먹이로 제공한 뒤 일생을 마치는
거미도 있다. 사랑에서 희생의 본질은
그런 높이에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정호승 | 열림원 | <위안>에서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 

+ 3월 25일 토요일 사순 피정이 김태승 신부님을 모시고 한테레사 자매택에서 저녁 5-9시까지 있었습니다.

+ 3월 25일 DC Franciscan Monastery에서 있는 지구형제회 총회에 한테레사 김미경 자매가 다녀왔습니다. 최경분 글라라 자매가 양성, 이경숙 말가리가 자매가 회계로 선출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날 새로 선출된 지구형제회의 평의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장: Carolyn Protin 서기: Ann Corro
- 부회장: Angela Gill 양성: Clara Choe
- 회계: Margaret Lee
- 구역장: MD/PA - Mary Simmons
- Metro DC - Miguel Tirado
- VA/WV - Jeanie McLees

+ 3월 16일 작은형제회소속 김태승 안티모 OFM 신부님께서 김병두 베르나르디노 신부님 후임으로 오셔서 3월 19일 월례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날 월례회 후 신부님을 모시고 서울 식당에서 자축 환영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월례회에 MD 글라라 형제회에서 7분이 신부님 인사차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4월 30일 밤모임 후 양성보조교육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곧 이어 평의회가 있습니다.

+ 7월 9일 서약피정이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조로사 자매택에서 있습니다.

+ 5월 27-29일 메모리얼 데이 캠핑에 신청하신 분은 한테레사 자매께 약도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4월 24일 월요일 생일을 맞이하는 김안티모 신부님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7월 16일 있을 서약/유기/입회 하실 분들을 위해 ...
- + 우리 형제회에 새로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 ...
- + 메모리얼 데이에 있을 캠핑이 자연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
- + 콰토마스아퀴나스 형제님 부부가 한국에 형제님의 어머니 첫성모를 가셨습니다. 잘 다녀 오시기를 ...

4월 월례회 시간표

- 1:00 PM - 다과
- 1:30 PM - 양성 교육
- 3:15 PM - 월례회 / 신부님 특강 / 미사

✂ 미사성가: 지침서 ✂

- 입당: 13번 주를 찬미하여라
-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 마침: 85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신자들의 기도

이장훈, 조은자, 조봉순, 지수성

간식담당

- 4월: 조아가다, 한바오로, 김운옥, 마리아
- 5월: 하테레사, 콰로사, 송마리아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OFM